

최근 經濟動向

이 규 절

I. 주요업종별동향

◇ 자동차(自動車)

지난 9월중 자동차 생산은 신차 및 다목적 차량을 중심으로 한 내수판매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한 241천대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이후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수요의 상향 이동 등에 따라 중·대형과 다목적형 차량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한 201천대를 기록하였고, 상용차는 버스, 트럭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한 40천대를 기록하였다.

내수판매는 신모델 및 다목적 차량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9.4% 증가한 123천대를 기록하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63.4% 증가한 89천대에 달하였으며, 상용차도 경기호전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9.7% 증가한 34천대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출은 현지 재고조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124천대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버스는 10.9% 감소한 반면, 트럭

과 특장차는 각각 12.0%, 44.7%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 등 북미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30.9%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크게 둔화되었고, 그밖에 유럽, 아프리카, 중동, 태평양, 중남미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 자동차 ◆

(台, %)

| | 1998. 9월 | | 1999. 9월 | | 99.1~9월 | |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前年同月比 | 前年同月比 | | |
| • 生産 | 204,611 | 108.3 | △10.3 | 241,305 | 8.0 | 17.9 | 1,991,696 | 46.6 |
| • 出荷 | 199,994 | 73.4 | △10.6 | 247,602 | 3.0 | 23.8 | 1,968,280 | 35.0 |
| (內 需) | 77,375 | 65.1 | △43.2 | 123,303 | 13.7 | 59.4 | 886,326 | 60.2 |
| (輸出) | 122,619 | 79.1 | 40.1 | 124,299 | △5.9 | 1.4 | 1,081,954 | 19.6 |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전기·전자(電氣·電子)

금년 9월중 전자제품 수출은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가정용전자가 6개월째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37.8% 증가한 4,450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중 누계는 35,583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하였다.

산업용 전자 수출은 통신기기와 컴퓨터가 모두 호조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110.3% 증가한 1,54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유선통신기기 45.5%, 무선통신기기 127.9%, 컴퓨터 11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올들어 전년대비 누계액기준 98.7%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7억달러를 넘는 수출실적으로 국내 6대 수출품목의 자리에 올라섰다. 컴퓨터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PC의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전자관, 액정디바이스(TFT-LCD포함), 기구부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한 2,35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9월 발생한 타이완 강진의 영향으로 현지 반도체 공장 조업 차질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하였다. 반도체 주력 상품인 64MDRAM이 최고 21달러의 가격대를 형성했는데, 이는 연중 최저치인 7월 초 4.60달러보다 5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세계적인 평면 및 대형 브라운관 수요확대와 노트북 수요 확산에 따라 전자관과 액정디바이스의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전자관이 9.9%, 액정디바이스가 77.2%의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세계적인 공급부족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가정용 전자의 수출 역시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 수요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27.6% 증가한 556백만달러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VTR, 디지털 TV 등 영상기기가 31.1%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으며, 음향기기도 23.5% 증가하였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의 호조세 지속으로 기타 가정용 기기도 전년동월대비 34.5% 증가하였다.

◇ 일반기계(一般機械)

금년 9월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하여 8월에 이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공공작기계가 66.5%, 엔진 및 터빈이 42.9%, 공기조절장치가 42.1%, 산업용 냉장 및 냉동기기가 39.7%로 생산증가를 주도하였다. 출하도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7.6%의 증가를 보였다.

일반기계류 수출은 6월이후 지속된 엔화강세에 힘입어 9월중에 전년동월대비 11.5%가 증가한 78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냉동공조기계가 41.9% 증가한 46백만달러, 밸브가 41.2% 증가한 21백만달러, 풍수력기계가 28.2% 증가한 53백만달러, 운반하역기계가 23.4% 증가한 47백만달러로 수출증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금속공작 기계의 수출은 미국, 일본 등 공작기계의 주요 수요국가의 지속된 관련산업 경기부진으로 55.2%나 감소한 28백만달러에 그쳤다.

9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8.4%나 급증한 856백만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증가와 수입선다변화 해제 영향 등에 기인한다. 품목별로는 금속공작기계가 118.6% 증가한 61백만달러, 운반하역기계가 100% 증가한 44백만달러, 풍수력기계가 67.9% 증가한 104백만달러로 수입증가를 주도하였다.

특히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머시닝

◆ 전 자 ◆
(百萬 달러,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1~9월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期比 | |
| 輸 出 | 3,228 | 8.6 | △9.7 | 4,450 | 7.4 | 37.8 | 35,583 | 29.1 |
| (産業用電子) | 732 | 21.2 | △18.7 | 1,540 | 16.0 | 110.3 | 10,540 | 66.9 |
| (電子部品) | 2,061 | 4.5 | △4.8 | 2,354 | 2.9 | 14.2 | 20,431 | 19.5 |
| (家庭用電子) | 495 | 10.1 | △14.9 | 556 | 5.7 | 27.6 | 4,612 | 11.4 |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센타,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등으로 구성된 급속공작기계의 높은 증가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비중은 적으나 240%의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식 동력 구동 공구, 194.1%나 증가한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기계 등의 수입규모도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9월중 국내기계수주는 차량관련 기계류의 발주 축소, 상대적으로 높았던 작년 9월의 수주수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9.2%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공공부문에서 전년동월 대비 불과 1.5%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에서도 조립기계, 섬유기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가 주춤하여 10.3% 증가하는데 그쳤다.

◆ 일반기계 ◆

(百萬달러,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1~9월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月比 | |
| 輸 出 | 685 | 10.7 | △13.0 | 785 | 12.9 | 11.5 | 7,394 | 16.1 |
| 輸 入 | 577 | △5.4 | △56.7 | 856 | 18.6 | 48.4 | 7,765 | 28.6 |

◇ 철강(鐵鋼)

9월중 조강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한 3,386천M/T를 기록하였다. 이중 전로(轉爐)생산은 포철의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5.7% 증가한 1,974천M/T, 수요 증가에 힘입은 전기로 생산은 8.5% 증가한 1,412천M/T에 달하였다. 세계 조강생산은 9월중 64,580천M/T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중국은 9월까지 90백만M/T을 상회하는 생산실적을 기록함으로써 1999년에도 세계 최대 조강생산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55.4% 증가한

2,894천M/T에 달하였다. 조강류 내수는 전 품목에 걸친 고른 수요증가로 30.9% 증가한 1,295천M/T, 판재류 내수는 열연 및 냉연강판을 중심으로 한 호조세 지속으로 87.9% 증가한 1,565천M/T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철강재 생산도 전년동월대비 25.4% 증가한 3,808천M/T를 기록하는 등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철강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한 562백만달러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인 열연 및 냉연강판의 부족현상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수출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테인리스열연강판(9월중 28백만달러, 전년동월 대비 38.2% 증가) · 전기아연도강판(19백만달러, 29.6%) · 기타철구조물(17백만달러, 39.7%) 등은 호조세를 보였다.

한편 철강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9.6% 증가한 429백만달러를 기록,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연강판(9월중 78백만달러, 전년동월 대비 1780.8% 증가) · 기타고철(48백만달러, 6.4%) · 슬라브(20백만달러, 4.3%) 등 반제품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열연강판의 수입은 3/4분기 들어서도 월평균 340천M/T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 강 ◆

(千 M/T, 백만불,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 1~9월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月比 | |
| 조강생산 | 3,169 | 0.9 | △11.3 | 3,386 | △1.1 | 6.9 | 30,096 | 0.5 |
| 내 수 | 1,862 | △1.6 | △40.3 | 2,894 | 10.9 | 55.4 | 24,634 | 34.2 |
| 수 출 | 624 | △0.6 | 17.1 | 562 | △19.3 | △9.9 | 5,057 | △18.6 |
| 수 입 | 287 | 1.5 | △53.7 | 429 | △3.7 | 49.6 | 3,718 | 20.3 |

註) : 수출은 통관기준임

資料 :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석유화학(石油化學)

9월중 석유화학산업은 관련산업의 수요강세 지속에 힘입어 생산과 내수출하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대만 지진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호조국면이 이어졌다. 생산물량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수요 회복에 힘입어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3.2%, 17%증가, 1,291천톤에 달하여 월중생산량으로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내수출하(內需出荷)는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부족으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기·전자, 자동차, 화섬 등 수요산업의 경기호조,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우려한 가공업계의 가수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증가하였다. 수출물량은 대만 지진사태, 가격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내수호조 및 공급물량의 한정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에 따라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6.5%의 급증세를 나타냄으로써 연간기준의 수출도 10월 이후에는 증가세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한편 동절기 수요증가로 유가(油價) 및 나프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열 유도품의 국제가격도 전월에 이어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PE, PP 등 합성수지의 경우 9월중 가격이 전월대비 20~30%상승한 데 이어 10월중 거래가격도 9월대비 10%이상 인상

되었다. 유도품 가격인상은 연초대비 두배 이상 상승한 나프타가격의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여 업계의 채산성확보가 주요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유도품 가격상승으로 업계전체의 매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비금속광물(非金屬鑛物)

9월중 시멘트 생산은 내수 감소로 인해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증가세가 6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하여 전년동월대비 18.8% 줄어든 3,694천M/T을 기록하였다. 업체별 생산실적을 보면 쌍용양회가 982천M/T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동양 시멘트 699천M/T, 성신양회 473천M/T, 현대시멘트 358천M/T, RH시멘트 325천M/T, 아세아시멘트 220천M/T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내수는 9월중 추석연휴와 태풍의 영향으로 공사일수가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22.5% 감소한 3,486천M/T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전년동기대비로는 5.9% 감소한 31,745천M/T를 기록하여 올해 전체 내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은 338천M/T으로 전월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져 255.8%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전월과 같이 이집트에 대한 수출이 94천M/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본 85천M/T, 미국 84천M/T, 대만 36천M/T, 앙골라 37천M/T의 수출실적으로 보였다. 수입은 전

◆ 석유화학 ◆

(千M/T,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 1~9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月比 | |
| • 生産 | 1,103 | △1.5 | △0.3 | 1,291 | 3.2 | 17.0 | 10,849 | 8.6 |
| • 出荷 | 1,175 | 2.4 | 7.3 | 1,299 | 1.9 | 10.6 | 10,858 | 8.4 |
| (內需) | 589 | 11.6 | △8.4 | 694 | △6.3 | 17.8 | 5,989 | 18.5 |
| (輸出) | 586 | △5.5 | 29.6 | 605 | 13.5 | 3.2 | 4,869 | △1.8 |

◆ 비금속광물 ◆

(千M/T,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 1~9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月比 | |
| • 生産 | 4,547 | 33.5 | △10.9 | 3,694 | △7.8 | △18.8 | 34,780 | 2.6 |
| • 出荷 | 4,593 | 37.3 | △4.3 | 3,824 | △4.7 | △16.7 | 34,767 | 0.7 |
| (內需) | 4,498 | 40.0 | △5.4 | 3,486 | △3.8 | △22.5 | 31,745 | △5.9 |
| (輸出) | 95 | △28.6 | 137.5 | 338 | △13.6 | 255.8 | 3,022 | 295.5 |

월보다 36.8% 감소한 24천M/T에 머물렀다.

한편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81.7%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수주도 36.5%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으로써 건설경기가 다소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점차적인 시멘트 내수증가가 기대된다.

◇ 섬유(纖維)

9월중 섬유수출은 엔화강세에 힘입어 6월 이후 4개월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1,48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 홍콩이 주 수출시장인 섬유 원료, 섬유사 및 섬유직물의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섬유원료는 폴리에스터 및 아크릴섬유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한 71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섬유사는 폴리에스터 및 면사의 대 미국, 중국 및 EU 에 대한 수출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한 10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섬유직물은 편직물 및 혼방직물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767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의류 중심의 섬유 제품의 수출도 편직의류 및 혁의류, 모자, 양탄자 등의 기타 섬유제품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53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주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직물류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169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일본으로

의 수출도 엔화강세에 따른 섬유제품의 수출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한 12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31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수출용 원자재 증가 및 내수회복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으로부터는 인조섬유방직사를,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부터는 면사류를, 중국으로부터는 저가 의류를, 이태리, 미국, 일본 등으로 부터는 고급 의류의 수입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3.0% 증가한 34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조선(造船)

9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전년동월대비 405.7% 증가한 16척 1,213천G/T를 기록하여 하반기 들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 7척 457천G/T, 유조선 3척 392천G/T, 벌크캐리어 5척 295천G/T, 자동차전용선 1척 69천G/T를 기록하였다.

9월중 건조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99.6% 증가한 16척 1,076천G/T를 기록하였으며 9월말 수주잔량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310척 19,431천G/T를 기록하였다.

해운업계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선박 발주를 전면 중단하고 보유선박도 매각해 용선으로 전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환율 및 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고 운임이

◆ 섬유 ◆
(百萬달러,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 1~9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月比 | |
| 輸 出 | 1,465 | 11.5 | △1.1 | 1,487 | 5.3 | 1.5 | 12,538 | △1.8 |
| 纖維原料 | 62 | 24.2 | △17.0 | 71 | 12.9 | 12.8 | 525 | △10.7 |
| 纖維絲 | 116 | 25.8 | △12.2 | 109 | △0.9 | △5.3 | 1,051 | △13.3 |
| 織 物 | 753 | 13.4 | △8.9 | 767 | 8.9 | 1.9 | 6,621 | △3.2 |
| 纖維製品 | 534 | 4.9 | 19.3 | 539 | 0.9 | 1.2 | 4,341 | 5.2 |

◆ 조 선 ◆
(千G/T, %)

| | 1998. 9월 | | | 1999. 9월 | | | 1999. 1~9 | |
|--------|----------|-------|-------|----------|-------|-------|-----------|-------|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月比 | 前年同月比 | | 前年同月比 | |
| • 受 注 | 299 | △60.3 | △84.3 | 1,213 | 162.8 | 405.7 | 5,795 | △15.7 |
| • 建 造 | 539 | △29.2 | △6.6 | 1,076 | 256.7 | 199.6 | 7,506 | 29.4 |
| • 受注殘量 | 18,813 | 1.3 | 11.7 | 19,431 | 0.7 | 3.3 | 19,431 | 3.3 |

상승하여 수익성 전망이 밝아 선박 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운(海運)

9월중 건화물운임지수 MRI는 전월의 214.0에서 2.4포인트 상승한 216.4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승세는 아시아의 경제회복 및 극동지역 철강회사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Capesize급은 대서양 수역에서 꾸준한 물동량 증가와 극동지역 철강회사의 철광석 수요증가로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석탄 등의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어 태평양 수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Panamax급은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르는 물동량 증가로 신형 Panamax급에 대한 용선 수요증가 및 대서양 수역에서의 소형 벌크선 물동량 증가로 운임이 상승하였다.

Handysize급은 9월 들어 전수역에 걸쳐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의 물동량 증가와 대서양 수역에서의 선박량 부족현상으로 강세를 유지하였다.

탱커 운임지수 WS(World Scale)는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초대형 유조선(VLCC)를 중심으로 운임이 상승세를 보여 전월의 39.8보다 8.3포인트 상승한 48.1을 기록하였다.

Persian Gulf-Far East 항로의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9월 평균 운임은 48.1포인트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1% 상승하였다. 향후 탱커시황은 산유국의 원유생산 증대, 주요 소비국의 재고 감소, 겨울철 수요에 대비한 수입

물량 증가 기대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Suezmax급 시장은 9월에 용선 성약수는 적었으나 운임은 소폭 개선을 보였다. 지중해 및 북해 수역 운임은 신형선 및 노후선의 운임차가 심화되어, 신형선의 경우 WS70대 초반에서 형성된 반면에 노후선은 WS60대 초반에 머물렀다.

II. 대외거래

◇ 수출(輸出)

10월중 수출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가 계속되어 전년동월 대비 27.0% 증가한 135.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중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경공업제품은 종이류(9.9%), 직물(0.1%), 의류(0.5%) 등은 증가하였으나 타이어·튜브(△0.6%), 금(△74.6%)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23.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은 전기전자제품(37.5%), 기계류 및 정밀기계(10.6%), 승용차(5.2%)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한 8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수입(輸入)

10월중수입은 수출 및 생산활동증가, 설비투자회복 등으로 자본재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원자재 및 소비재도 증가세가 계속되어 전년동월대비 48.5% 증가한 113.6억달러

對 外 去 來

(억달러, 前年同期比, %)

| | 98.10月 | 98.1~10月 | 99.1/4 | 2/4 | 3/4 | 10月 | 99.1~10月 |
|-----------------|------------------|-------------------|-----------------|-----------------|-----------------|-----------------|------------------|
| · 通關輸出 (增減率) | 106.3 (△14.7) | 1,082.2 (△3.3) | 302.6 (△6.1) | 357.9 (2.6) | 351.5 (15.3) | 135.1 (27.0) | 1,147.1 (6.0) |
| · 通關輸入 (增減率) | 76.5 (△39.3) | 763.1 (△37.8) | 255.7 (8.1) | 287.3 (22.1) | 297.2 (38.5) | 113.6 (48.5) | 953.7 (25.0) |
| · 輸出入差 | 29.9 | 319.2 | 46.9 | 70.6 | 54.4 | 21.5 | 193.4 |

品目別輸出

(通關基準, 억달러)

| | 98.9월 | 98.1~9월 | 99.8월 | 99.9월 | 99.1~9월 |
|------------|--------------|--------------|--------------|--------------|---------------|
| 全體輸出 | 107.5 (Δ5.2) | 975.9 (Δ1.9) | 114.0 (17.4) | 119.6 (11.3) | 1,012.0 (3.7) |
| 重化學工業製品 | 74.3 (Δ4.0) | 649.9 (Δ1.1) | 82.9 (25.1) | 86.8 (16.9) | 718.1 (10.5) |
| 化 工 品 | 7.3 (Δ9.0) | 67.9 (Δ1.4) | 7.9 (9.9) | 8.8 (20.7) | 66.6 (Δ1.8) |
| 鐵鋼 및 金屬製品 | 8.9 (4.3) | 85.9 (19.1) | 9.6 (14.2) | 8.4 (Δ5.5) | 75.8 (Δ11.8) |
| 機械類와 精密機器 | 9.1 (2.8) | 73.4 (2.2) | 8.9 (16.6) | 10.1 (10.6) | 84.3 (14.9) |
| 電氣電子製品 | 28.8 (Δ11.2) | 248.3 (Δ8.2) | 36.9 (38.4) | 39.6 (37.5) | 314.2 (26.6) |
| (半 導 體) | 14.2 (Δ5.5) | 120.9 (Δ5.1) | 15.4 (8.4) | 15.8 (10.9) | 136.7 (13.1) |
| (情報通信機器) | 7.3 (Δ21.2) | 63.5 (Δ10.7) | 13.1 (117.1) | 15.1 (106.3) | 103.9 (63.7) |
| 乘 用 車 | 7.0 (19.6) | 53.8 (Δ9.4) | 8.1 (113.3) | 7.3 (5.2) | 66.5 (23.6) |
| 輕 工 業 製 品 | 25.9 (Δ2.3) | 248.9 (Δ3.7) | 22.2 (Δ7.3) | 23.9 (Δ7.8) | 222.0 (Δ10.8) |
| 織 維 絲 | 1.1 (Δ9.5) | 11.8 (Δ10.1) | 1.1 (22.2) | 1.1 (Δ4.6) | 10.3 (Δ12.8) |
| 織 物 | 6.7 (Δ11.5) | 61.4 (Δ15.2) | 6.2 (4.1) | 6.7 (0.1) | 58.2 (Δ5.3) |
| 衣 類 | 4.6 (22.9) | 35.4 (14.6) | 4.6 (2.2) | 4.6 (0.5) | 36.4 (3.0) |
| 타 이 터 · 튜브 | 1.2 (2.1) | 11.8 (9.7) | 1.1 (Δ5.2) | 1.2 (Δ0.6) | 11.2 (Δ5.1) |
| 금 | 3.6 (Δ19.4) | 51.7 (1.5) | 0.6 (Δ85.6) | 0.9 (Δ74.6) | 25.8 (Δ50.1) |
| 중 이 류 | 1.3 (11.2) | 12.5 (10.7) | 1.4 (7.1) | 1.5 (9.9) | 12.9 (3.5) |

註)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品目別輸入

(通關基準, 억달러)

| | 98.9월 | 98.1~9월 | 99.8월 | 99.9월 | 99.1~9월 |
|-------------|--------------|---------------|-------------|--------------|--------------|
| 全體輸出 | 72.5 (Δ37.2) | 686.6 (Δ37.6) | 98.3 (38.2) | 101.2 (39.5) | 840.2 (22.4) |
| 原 資 材 | 34.3 (Δ38.6) | 341.8 (Δ34.4) | 47.6 (39.6) | 48.9 (42.4) | 396.2 (15.9) |
| 原 油 | 7.6 (Δ48.1) | 83.9 (Δ35.7) | 11.9 (36.1) | 14.0 (84.8) | 94.2 (12.3) |
| 輕 工 業 原 料 | 3.0 (Δ31.7) | 28.2 (Δ35.6) | 3.3 (12.3) | 3.3 (11.3) | 30.2 (6.9) |
| 化 工 品 | 6.3 (Δ28.2) | 59.5 (Δ32.1) | 8.0 (35.0) | 7.8 (23.6) | 69.6 (17.0) |
| 鐵 鋼 材 | 2.5 (Δ52.9) | 26.2 (Δ44.1) | 4.1 (83.1) | 3.8 (54.8) | 32.7 (25.0) |
| 資 本 財 | 28.1 (Δ34.1) | 254.4 (Δ38.7) | 40.7 (50.0) | 41.7 (48.7) | 339.0 (33.3) |
| 機械類와 精密機器 | 8.0 (Δ51.0) | 77.3 (Δ51.3) | 10.6 (31.3) | 11.9 (48.2) | 93.5 (20.9) |
| 電氣電子製品 | 18.3 (Δ19.6) | 154.4 (Δ27.5) | 27.1 (67.8) | 27.1 (47.6) | 222.3 (43.9) |
| (半 導 體) | 10.6 (Δ0.4) | 87.5 (Δ7.5) | 14.0 (45.3) | 13.5 (27.0) | 117.0 (33.8) |
| (情報通信機器) | 3.0 (Δ36.7) | 24.2 (Δ48.9) | 5.9 (137.1) | 6.1 (99.8) | 45.6 (88.7) |
| 消 費 財 | 10.2 (Δ40.3) | 90.4 (Δ45.2) | 10.0 (0.9) | 10.6 (4.2) | 104.9 (16.0) |
| 穀 物 | 1.8 (Δ35.7) | 19.6 (Δ17.0) | 1.8 (Δ0.8) | 1.8 (Δ2.1) | 16.9 (Δ13.7) |
| 直 接 消 費 財 | 2.3 (Δ33.4) | 16.6 (Δ47.7) | 2.9 (45.8) | 3.2 (40.4) | 26.1 (56.7) |
| 耐 久 消 費 財 | 5.2 (Δ36.3) | 45.7 (Δ48.1) | 3.6 (Δ31.1) | 4.0 (Δ22.8) | 50.6 (10.7) |
| (金) | 3.3 (Δ26.1) | 29.8 (Δ44.8) | 1.1 (Δ69.3) | 1.5 (Δ56.5) | 29.0 (Δ2.8) |
| (家 電 製 品) | 0.4 (Δ54.9) | 3.4 (Δ53.1) | 0.6 (64.9) | 0.6 (61.3) | 4.7 (37.5) |
| 非 耐 久 消 費 財 | 0.9 (Δ66.6) | 8.4 (Δ61.0) | 1.7 (93.3) | 1.6 (83.5) | 11.3 (34.7) |

註)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를 기록하였다.

9월중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소비재는 직접소비재(40.4%), 비내구소비재(83.5%)와 대부분의 내구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비중이 큰 금(△56.5%)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한 10.6억달러에 그쳤으며, 원자재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입(86.8%)이 크게 증가하였고 화공품(23.6%)과 철강재(54.8%)도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2.4% 증가한 48.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본재는 전기·전자기기(47.6%), 기계류 및 정밀기기(48.2%) 등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8.7% 증가한 41.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지역별 수출입
(地域別 輸出入)

9월중 대선진국 수출은 미국(28.4%), 일본(42.9%), EU(9.3%) 등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계속되어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한 60.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출은 동남아(11.4%), 중국(24.4%)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地域別輸出入

(通關基準, 억달러)

| | | 98.9月 | 98.1~9月 | 99.8月 | 99.9月 | 99.1~9月 |
|-------------|-------|---------|---------|---------|---------|---------|
| 先 進 國 | 輸 出 | 51.7 | 466.2 | 55.3 | 60.9 | 505.8 |
| | (增減率) | (3.7) | (6.9) | (21.5) | (17.8) | (8.5) |
| | 輸 入 | 45.5 | 420.8 | 58.1 | 58.5 | 506.7 |
| | (增減率) | (△34.9) | (△39.0) | (34.1) | (28.8) | (20.4) |
| | 輸出入差 | 6.2 | 45.5 | △2.8 | 2.3 | △0.9 |
| 美 國 | 輸 出 | 19.6 | 167.1 | 23.7 | 25.2 | 204.8 |
| | (增減率) | (1.0) | (5.4) | (30.3) | (28.4) | (22.6) |
| | 輸 入 | 17.4 | 150.4 | 20.6 | 20.0 | 182.6 |
| | (增減率) | (△24.5) | (△35.8) | (29.9) | (15.0) | (21.4) |
| | 輸出入差 | 2.2 | 16.7 | 3.1 | 5.2 | 22.3 |
| 日 本 | 輸 出 | 9.6 | 88.7 | 11.9 | 13.8 | 105.7 |
| | (增減率) | (△16.5) | (△19.7) | (42.7) | (42.9) | (19.2) |
| | 輸 入 | 13.4 | 122.9 | 19.4 | 21.1 | 165.0 |
| | (增減率) | (△39.1) | (△42.3) | (62.4) | (57.0) | (34.2) |
| | 輸出入差 | △3.8 | △34.2 | △7.5 | △7.3 | △59.2 |
| E U | 輸 出 | 15.5 | 128.7 | 15.1 | 16.9 | 140.3 |
| | (增減率) | (10.2) | (9.5) | (14.6) | (9.3) | (9.0) |
| | 輸 入 | 8.0 | 82.8 | 10.7 | 10.4 | 91.1 |
| | (增減率) | (△46.2) | (△42.9) | (31.6) | (29.7) | (10.0) |
| | 輸出入差 | 7.5 | 45.8 | 4.4 | 6.5 | 49.2 |
| 開 途 國 | 輸 出 | 55.8 | 509.7 | 58.7 | 58.7 | 506.2 |
| | (增減率) | (△12.1) | (△8.7) | (13.8) | (5.2) | (△0.7) |
| | 輸 入 | 27.1 | 265.8 | 40.3 | 42.6 | 333.4 |
| | (增減率) | (△40.7) | (△35.3) | (44.5) | (57.4) | (25.4) |
| | 輸出入差 | 28.7 | 243.9 | 18.5 | 16.1 | 172.8 |
| 東 南 亞 | 輸 出 | 24.8 | 220.8 | 26.3 | 27.6 | 234.7 |
| | (增減率) | (△18.7) | (△20.1) | (11.1) | (11.4) | (6.3) |
| | 輸 入 | 9.0 | 82.3 | 12.8 | 13.6 | 111.1 |
| | (增減率) | (△21.3) | (△30.8) | (60.5) | (50.6) | (34.9) |
| | 輸出入差 | 15.8 | 138.5 | 13.4 | 14.0 | 123.6 |
| 中 國 | 輸 出 | 9.2 | 88.6 | 10.9 | 11.4 | 96.9 |
| | (增減率) | (△15.2) | (△9.5) | (30.4) | (24.4) | (9.4) |
| | 輸 入 | 5.1 | 48.7 | 7.5 | 8.0 | 61.1 |
| | (增減率) | (△45.2) | (△35.3) | (28.6) | (58.8) | (25.5) |
| | 輸出入差 | 4.1 | 39.9 | 3.4 | 3.4 | 35.8 |
| 中 東 | 輸 出 | 5.8 | 49.0 | 5.0 | 5.6 | 46.1 |
| | (增減率) | (31.7) | (32.3) | (0.3) | (△4.4) | (△5.8) |
| | 輸 入 | 7.8 | 84.7 | 12.0 | 15.4 | 94.4 |
| | (增減率) | (△40.3) | (△33.8) | (29.0) | (96.3) | (11.5) |
| | 輸出入差 | △2.0 | △35.7 | △7.0 | △9.8 | △48.3 |
| 中 南 美 | 輸 出 | 8.0 | 66.5 | 6.7 | 6.5 | 60.5 |
| | (增減率) | (△3.3) | (5.7) | (△12.3) | (△19.1) | (△9.0) |
| | 輸 入 | 1.7 | 17.0 | 2.6 | 2.1 | 20.7 |
| | (增減率) | (△60.0) | (△44.1) | (67.5) | (18.1) | (21.8) |
| | 輸出入差 | 6.3 | 49.5 | 4.1 | 4.4 | 39.8 |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2% 증가한 5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지역별 수입을 살펴보면 대선진국 수입은 미국(15.0%), 일본(57.0%), EU(29.7%) 등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8.8% 증가한 58.5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입도 동남아(50.6%), 중국(58.8%), 중동(96.3%) 등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57.4% 증가한 42.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국제수지(國際收支)

9월중 경상수지는 24.3억달러의 흑자를 기

록하여 전월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상품수지는 수출증가로 흑자규모가 전월보다 10억달러 확대되어 26.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수지는 하계휴가철의 종료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여행 감소로 인한 여행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0.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규모는 전월보다 축소되었다.

소득수지는 전월과 비슷한 2.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9월중 자본수지는 현대자동차의 DR발행(5.0억달러)에도 불구하고 IMF지원자금 조

經 常 收 支

(억달러)

| | 98年 | 98.1~9月 | 99.1/4 | 2/4 | 3/4 | 8月 | 9月 | 99.1~9月 |
|-------------|-------|---------|--------|-------|------|------|------|---------|
| 經 常 收 支 | 405.6 | 318.7 | 61.9 | 63.3 | 66.4 | 14.1 | 24.3 | 191.6 |
| 商 品 收 支 | 416.3 | 317.7 | 67.8 | 81.0 | 71.9 | 16.2 | 26.2 | 220.7 |
| 서 비 스 收 支 | 6.3 | 6.0 | △1.2 | △5.4 | △2.9 | △1.4 | △0.6 | △9.5 |
| 所 得 收 支 | △50.5 | △30.8 | △10.2 | △16.8 | △7.3 | △2.3 | △2.4 | △34.2 |
| 經 常 移 轉 收 支 | 33.5 | △23.6 | 5.5 | 4.4 | 4.6 | 1.6 | 1.0 | 14.6 |

註)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資 本 收 支

(억달러)

| | | 98.9月 | 98.1~9月 | 99.8月 | 99.9月p ₁ | 99.1~9月p ₁ |
|--------------------------|-----------------|-------|---------|-------|---------------------|-----------------------|
| 資 本 收 支 (A + B) | | △21.9 | △23.6 | △16.9 | △24.9 | △37.3 |
| A. 投 資 收 支 | | △21.7 | △25.9 | △16.7 | △24.7 | △35.3 |
| 形 態 別 | 直 接 投 資 | △4.3 | 5.0 | 14.9 | △1.3 | 34.2 |
| | 證 券 投 資 | △18.3 | 5.0 | △18.1 | 4.2 | 41.8 |
| | 其 他 投 資 | 0.8 | △35.9 | △13.5 | △27.6 | △111.3 |
| 主 體 別 | 資 產 (內 國 人 投 資) | △8.6 | 2.0 | △12.7 | △4.5 | △56.5 |
| | 直 接 投 資 | △9.3 | △33.3 | △3.3 | △3.9 | △23.6 |
| | 證 券 投 資 | △4.3 | △0.4 | 2.3 | 7.3 | 13.6 |
| | 其 他 投 資 | 5.0 | 35.7 | △11.7 | △7.9 | △46.4 |
| 別 | 負 債 (外 國 人 投 資) | △13.1 | △27.9 | △4.0 | △20.2 | △21.2 |
| | 直 接 投 資 | 5.0 | 38.3 | 18.2 | 2.6 | △57.8 |
| | 證 券 投 資 | △14.0 | 5.3 | △20.4 | △3.1 | 28.2 |
| | 其 他 投 資 | △4.1 | △71.6 | △1.8 | △19.7 | △64.9 |
| B. 其 他 資 本 收 支 [資 本 移 轉] | | △0.2 | 2.3 | △0.2 | △0.1 | △2.0 |

기상환(17.5억달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11.6억달러) 등으로 자본유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4.9억달러의 유출초(流出超)를 기록하였다.

형태별로는 증권투자가 4.2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직접투자와 기타투자는 각각 1.3억달러 및 27.6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